

# 실험영화·다큐 보러 'ACC 시네마테크' 오세요

5월~11월 영화·행사 프로그램 공개

'화순 칸테라 1946'·노동자뉴스제작단 상영  
정지우 영화감독 등과 대화의 시간도 가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시네마테크'가 5월부터 다양한 영화 작품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객을 기다린다.

지난해 7월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를 확장시켜 개관한 'ACC 시네마테크'는 영화 수집·제작지원과 함께 실험영화, 미디어아트,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는 공간으로 라이브러리파크에 위치한 200석 규모의 극장 3에 마련됐다.

오는 10일엔 미군에 의해 희생된 화순탄광 광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화순 칸테라 1946'을 상영하고, 31일엔 1000일간의 제주도 비경을 담아낸 '오버 데이'를 보고 장민승 감독·정재일 음악감독과 대화 시간을 가진다. 7월 18일엔 영화 '4등'을 관람한 후 정지우 감독을 만난다.

특별 기획 프로그램들도 다채롭다. 시네마테크는 노동자의 날을 맞아 기획된 노동자뉴스제작단의 '내가 뉴스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선 '안녕? 어대짜수짜님!', '이중의 적', '노동자 뉴스 1호'를 상영한다. 또 '이중의 적' 상영 후엔 이지영 감독과의 토크 이벤트가, '노동자 뉴스 1호'를 본 뒤엔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집담회 시간이 마련돼 있다. 기획 프로그램 'ACC 필름앤비디오 아카이브: 김국 켈



정재일 작곡가



김국 감독의 '철의 여인'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렉션'이 진행되는 다음달 21일은 독립·실험영화, 장르영화 등에서 활동하는 김국 영화감독의 주요 작품들로 스크린을 채운다. 이날은 오후 2시 '철의 여인'으로 시작해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코메디', '솔루션'을 연속 상영한 뒤 김 감독을 초청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눈다.

또 6월엔 영국로열발레단의 '로미오와 줄리엣'(13일), 라히프치히 계관초하우스 오케스트라 257주년 기념공연실황(19일)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7월엔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수상작들이 문화전당을 찾아온다. 독일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단편영화제로 1954년 시작돼 올해 65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시네마테크가 국내 최초로 오버하우젠 국제단편영화제 월드 투어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지난

3년간의 수상작과 어린이 영화 프로그램 등을 상영한다.

11월엔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는 영화제 '한국 나쁜영화 100년'이 이어진다. 광주극장, 광주독립영화관, 인디포럼 등과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검열당해 제대로 상영되지 못하고 소실 위기에 놓인 실험영화, 독립영화 등을 스크린으로 만난다.

한편 7~8월 아이들의 방학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입문' 행사도 눈길을 끈다. 동영상의 원리와 제작 과정을 체험하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필름에 손수 그림을 그린 뒤 영사기로 돌려보거나, 현대 디지털 기술에 맞춰 3D 영화로 만들어보는 체험형 워크숍이다. 직접 손간판을 만들어 광주극장에 걸어두는 이벤트도 함께한다.

모든 프로그램 무료. (선착순 입장) 문의 1899-5566.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클래식 공연 화제의 2題

### 리즈 콩쿠르 우승 에릭 루 광주 무대

12일 금호아트홀 리사이틀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등 연주

2018년도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 에릭 루가 광주를 찾았다. 오는 12일 오후 3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에릭 루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이 펼쳐진다.

'스타인웨이 위너 콘서트 인 코리아'로 기획된 이 공연은 국제 피아노 콩쿠르 수상자 중 선발된 연주자를 만나는 독주회다. 지난해 5월 진행된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이반 크르판 리사이틀 투어'를 잇는 국내 2번째 공연이다.

1997년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난 에릭 루는 지난 2013년 이후로 필라델피아 카터스 음악원에서 조나단 비스, 로버트 맥도날드, 당 타이 손을 사사했다.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뉴저지 심포니, 18세기 오케스트라, 바르샤바 필하모닉, 카타르 필하모닉 등과 협연했고, 카네기 홀, 알테 오페 프랑크푸르트, 타이페이 국립 콘서트홀, 서울 예술의전당 등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번 2018~2019시즌은 로얄 리버풀 필하모닉·지휘자 페트란코와 함께 시작했으며, 할레오케스트라·지휘자 마크 엘더 경과 협연을 계획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콩쿠르 연주곡인 베토벤·쇼팽의 곡을 수록한 첫 앨범을 발매했다.

이날 공연은 슈만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유령 변주곡'으로 시작해 브람스가 '내 고뇌의 자장가'라 불렀다고 전해지는 '간주곡 1번 op.117'과 '6개의 소품곡 op.118'을 연주한다.

이어 헨델의 '샤콘느 Hwv 435',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전석 3만원. 문의 062-360-843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네가지 색깔의 음악, 낭만·현대음악의 경계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피아니스트 문지영 리사이틀

1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듀오 리사이틀 공연을 선보인다.

두 솔리스트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이번 공연은 '네 가지 색깔의 음악, 낭만과 현대음악의 경계'를 주제로 펼쳐진다.

노부스 파르렛의 리더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은 필름 챔버 오케스트라 일 뮌헨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1위, ARD 국제 콩쿠르 2위, 제9회 대원음악상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대진 교수를 사사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제네바 국제 콩쿠르, 타카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으며, 특히 부조니 국제 콩쿠르 동양인 최초 우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김재영

문지영

이번 무대는 모리스 라벨의 '유작 소나타', 카를 시마노프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단조 op.9',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발셀 모음곡',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내림마단조 op.18' 등으로 채워진다.

전석 3만원, 학생 2만원(대학생까지). 문의 062-360-8432, 062-360-8437.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한국학호남진흥원, 9일 도청서 남도정신문화 강연회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사진)은 전라남도도와 공동 주관으로 '새로운 전라도 천년 원년'을 맞아 9일 오후 2시 전 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2019년 남도정신문화 강연회를 개최한다.

'겨레의 빛, 호남정신. 새천년을 비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한국을 이끌어온 전라도의 '혼과 정신'을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남도 위상의 계기로 삼자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남도의 정신문화'를 주제로 호남상상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절의와 실천적 성격을 이야기한다.

박 이사장은 의향과 예향이라는 아름다운 호남의 문화유산이 오늘에 이른 것은 호남 선현의 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선현들의 삶이 호남인의



박석무 이사장

창조적 리더십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어 흥영기 순천대 교수는 '호남의 병활동'을 주제로 한 말 호남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드러낼 예정이다. 강봉룡 목포

대 교수는 '새로운 해양시대 남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해양의 시대 남도의 위상을 강연한다.

행사 당일 식전행사로 창작판소리열두 바탕추진위원회와 강은일과 해금플러스 주관으로 '창작판소리 다산 정약용'도 공연된다. 이번 특별강연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62-603-961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찬주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군 홈페이지에 연재

소설가 정찬주(사진)가 강진군 홈페이지에 장편소설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를 12월까지 연재한다.

정 작가에 따르면 강진 출신 김억추 장수는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통제사와 함께 눈부신 전공을 세우고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던 용장이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은 김억추를 두 번이나 못마땅해 한다. '난중일기' 정유년 8월 8일자 일기로 명량해전 전투 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첫 번째다. '우사 김억추는 겨우 만호(萬戶)에나 적합할까 대장감이 못되는 사람인데 좌의정 김응남이 서로 친밀한 사이라고 해서 함부로 임명하여 보냈다.'

두 번째는 '난중일기' 정유년 9월 16일자 일기로 명량해전 결전의 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여러 장수들은 스스로 적은 군사로 많은 적과 싸우는 형세



정찬주 작가

임을 알고 달아날 꾀만 내고 있었다. 김억추가 탄 배는 벌써 2마장 밖으로 물러나 있었다.' 이 두 구절로 해서 김억추는 무능하고 비겁한 장수가 역사에 돼버린다.

그러나 정말 무능하고 비겁한가? 작가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정 작가는 "난중일기 정유년 8월 8일자는 이순신이 김억추보다는 김응남을 비난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재소설은 임진왜란 속의 김억추 장수를 현미경으로 보듯 집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